

韓 미래 비전... '네거티브 규제' vs '자유·창의 보장' 제시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규제 합리화' 재차 강조
윤석열 "혁신의 나라 만들겠다"
두 후보 모두 변화 필요성 동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변화의 기로에 놓인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개혁을 강조했고 윤 후보는 '변화의 도전에 맞서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띄웠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변화의 기로에 놓인 대한민국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개혁과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각각 주장하며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두 대선후보는 24일 서울 광화문 소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 2021-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 참석해 연단에 올라 악수를 나누고 기조연설을 이어나갔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연설을 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말에 동의하며 규제 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규제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손 회장의 말이 정말로 맞다며 "과거엔 관료들이 모든 것을 예측해서 허용할 것을 정해주는 방식이 가능했으나 이전 민간 영역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것

이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 관료들이 사회 변화를 전부 예측할 수 없고 명확하게 허용해선 안 될 위험한 영역을 정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전날(23일)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에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 이 후보는 이날 네거티브 규제로의 '규제 합리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래 사회에서는 금지하는 규제 외에는 모두 허용하고 사후에 필요하면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역동적인 신산업의 창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가

능하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목적은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경쟁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지, 기업을 괴롭히고 창의를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효율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당연히 철폐하고 경쟁효율을 강화하는 규제는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찾아 변화를 선도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는 그가 강조하는 열쇳말이었다. 지금까지의 '국가 중심의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 중심의 대한민국'으로 전환을 선언한 것.

윤 후보는 지난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도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자유와 창의를 강조한 바 있다.

윤 후보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상

상력을 키우고, 더 커진 상상력이 새로운 메타버스를 만든다"며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미래를 여는 열쇠이고, 집단적 사고와 획일적 강요는 미래를 닫는 자물쇠"라고 표현했다. 그는 "자유를 구속하고 상상력을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법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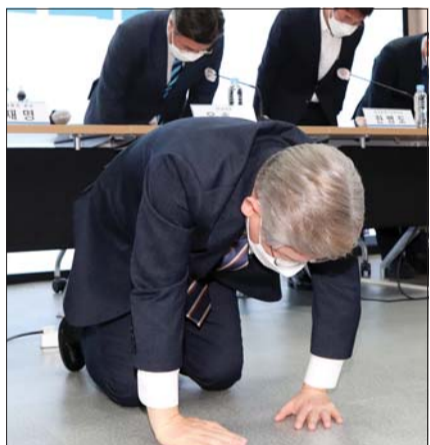
아울러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국가의 노력과 함께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이들도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깔고, 뒤쳐진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어서 단 한명의 국민도 홀로 남겨 놓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공정한 법 집행, 규제 개혁, 일자리 창출, 국제 사회 기여 등을 강조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국가는 변화에 적응할 수조차 없다. 윤석열이 변화의 폭풍 앞에 당당하게 맞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새 민주당으로 거듭”... 이재명 ‘사죄의 절’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
“아픈 마음 책임지지 못해 죄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사죄의 절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들을 향해 '아픈 마음, 어려움을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말과 함께 사죄의 절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민주당사에서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지금까지 우리의 민첩하지 못함에 깊이 성찰하고 반성한다"고 밝히며 급작스럽게 앞으로 나왔다. 간담회장은 순간 어수선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같이 일어나자"며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사죄의 절 이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이것으로도 부족한 것을 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사과드리고, 또 각오를 다지고 또 새롭게 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을 향해 "메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같이 좀 살자. 우리도 좀 살자'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다"며 "정당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것이고 국민들은 권한을 위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발목을 잡든, 장애물이 있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문책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조금 더 빠르고 민감하게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수용하고 가능한 일들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민생·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국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할 것을 요청하며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 등을 활용해 성과를 낼 것을 촉구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이재명, 합천댐 수상태양광 열린 간담회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경남 합천댐 물문화관에서 열린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개시 관련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尹-김종인, 상황변화 쉽지 않을 것”

김종인, 선대위 합류 거부



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당연히 그런 상황에선 항상 후보의 뜻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관계 복원에 대해서 "상황 변화가 있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상임선대위원장 선임을 놓고 선대위 합류를 거부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두 분의 의사를 명확하게 언론에 공표했고 그 안에서 약간의 변동성 정도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약간의 변동성이 둘의 갈등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이 지금까지 정치적 행보라고 해서 해놓은 말을 실언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정도만 가능한데, 큰 상황 변화라고 하면 윤 후보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영입 철회 의사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 후보의 평소 인사 스타일을 보았을 때 그런 일은 일

이 대표는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 같은 경우엔 본인이 특별 조직을 맡아 가지고 외연 확대를 위해 특임을 하는 것인데, 김병준 전 위원장도 그런 형태의 조직으로 정리가 된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닌 다른 분이 만약 선대위를 총지휘 한다면 빨리 그 내용을 결정하고 의중을 주변과 공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이 대표는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의 합류 여부 대해 "그분들의 장점을 흡수하기 위해 후보가 성급하지 않게 꾸준한 노력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與 주요 당직의원 사퇴... “대선승리 밀알”

윤관석 사무총장·박완주 정책위의장
“선당후사 자세로 각자 위치서 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해산을 밝힌 가운데, 윤관석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주요 정무직 당직의원들이 "선당후사의 자세로 새로운 민주당과 대선 승리의 밀알이 되겠다"며 일괄 사퇴했다.

윤관석 사무총장은 24일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를 비롯한 민주당 주요 당직 의원들 임직을 전달하고 자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번 대선은 코로나 위기와 대내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

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룰 유능한 책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중차대한 시점에 국민들은 민주당이 더욱 많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국민과 지지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주당 대전환 선대위도 이미 쇄신과 전면적 재편을 결의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민주당 정무직 당직 의원들은 비장한 각오로 새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선당후사 마음으로 일괄사퇴의 뜻을 모았다"며 "지금까지 주요 당직 의원은 코로나 극복, 경제극복, 대선 경선 관리,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통합단결 원팀 정신을 기초로 당의 변화 쇄신에 앞장서며 각자 위치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관석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무직 당직의원들의 일괄사퇴와 관련해 "민주당 선대위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국민 우선, 민생 우선'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대선 승리 위해 모든 것을 내려 놔주신 용단으로 감사히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사실 정무직 당직자 거취문제는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 그런 움직임 있다는 이야기는 얼핏 들었다"며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사실 잘 몰랐다"고 답했다. /박정익 기자